

불교병원 27일 준공식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 양·한방 종합병원



경기도 일산에 건립된 의과·한의과 대학 부속 불교병원.

본교 의과·한의과 대학 부속 불교병원 준공식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일산 건립현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99년 11월 30일 공사를 시

작한 불교병원은 연면적 27만여 평, 지하 2층·지상 12층으로 총 800병상(200병상 증축 예정)을 갖추고 있다. ▶관련기사 보도(2면)

이번 준공식은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서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각 정당 대선 후보자, 해외 11개 자매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건설 경과 및 현황 소개 △감사패 수여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내빈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감사패는 불교병원 시공을 담당할 LG건설 관계자와 고액기부자 등에게 수여된다.

준공식이 끝나면 이사장, 총장 등 내빈은 병원내부를 시찰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축하행사가 진행된다. 축하공연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병원내부를 둘러 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익성 대외협력처 기획사업팀장은 "행사 규모가 큰 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집행위

원과 실무위원을 각각 구성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 교통편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하차 후 33번 마을버스 △158번 좌석·일반버스 △158-5번 일반버스 △567번 좌석버스이다.

한편, 개인준비는 정관 개정·병원장 선임 보류 등으로 연내 개원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과 이사회 등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dmz@dongguk.edu

총장선출 논의 진전될 듯

교수회, 직원·학생과 협력 의지 밝혀

15대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한 교수·직원·학생의 논의가 한층 진전될 전망이다.

교수회는 지난 13일 열린 서울·경주캠퍼스 합동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해 직원·학생과 협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교수회가 '직원·학생대표는 투표 전 의견 개진 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며 다른 주체의 선거 참여를 도외시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입장 표명은 큰 변화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일호(경제학) 총무는 "재단의 일방적 총장 낙점을 막고 민주적인 총장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의원 대회에서는 △교수회 총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 교수 선출 △총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구성=오는 24일까지 서울·경주 각 단과대에서 1명의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다음달 4일 1차 회의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일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9일 중 선관위가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는 학내 주체가 총장선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며 불교병원 준공식 이후 창립식을 통해 총장선거 일정 등 구체적인 일정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회는 전 구성원의 참여 속에 총장선거가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찬(반도체) 부총학생회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이 후보자 공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종훈 교수회장은 "이번 달 안으로 총장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가 규정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밝혀 각 주체들은 선관위와 별도의 협의방법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각 주체들이 선거방식 등에 대해 준비해온 바가 명확해 입장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 세 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오복원 스님 초청법회 내일(17일) 정각원

고승초청법회가 내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개강을 맞아 열리는 이번 법회는 동국학원 이사장 오복원 스님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주제로 설법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장애인이동권 투쟁주간 영상물 방영·서명운동 등

본교 장애인인권행동위원회, 진보이론연구회, 사회학과 등 7개 단체는 지난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주간'을 진행했다.

이번 이동권 쟁취 주간은 △10일=이동권 연대 간담회 △11, 12일=장애인 이동권, 에바다 투쟁 관련 영상물 상영 △11~13일=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강성진(사회2)군이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를 점거하는 투쟁 중 연행됐다.

강 군은 지난 13일 훈방조치로 풀려났다.



우리 손으로 ...

미군 장갑차 희생자 추모문화제 '미선미와 효순이의 아리랑'이 지난 14일 경희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 단체 '희망' 학생들이 미군을 처벌하자는 내용의 노래를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2학기 수시모집 경쟁률 9.82:1

외국인 특별전형 24일부터 접수

2003년 2학기 수시 모집 접수 결과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평균 9.8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이

번 수시모집은 △외국어 우수자 △수학·과학 교과 우수자 △공업계 동일전공자 △특기자 △추천자 등을 선발한다. 합격자는 오는 11

월 28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형은 불교대 등 15개 단과대에서 총 58명을 선발하며 다음달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견 수렴한 개혁돼야”

교육환경 변화 따른 정책과제 토론회 열려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정몽준) 주최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인적자원부 김신복 차관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평생교육시대를 맞아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제로 시작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한준상(교육학) 교수는 학교가 모든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한 학교 교육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평생학습시대에 학교의 역할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의 역할을 줄이고 지역학습공동체 등을 만들어 교육의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려대 권대봉(교육학) 교

수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교육받는 학생보다 교사나 교수를 인적자원으로 봐야만 하며 "앞으로 교사에 대한 물질적·정신적인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달라리 교육환경에 따른 정책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인천교육대 광범성 초빙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개혁정책의 근본문제는 외국 교육제도를 여과 없이 모방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본교 박부권(교육학) 교수는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하향평준화 됐다는 주장에 "고등학교 추천배정 방식 도입 후 각 학교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율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대신 현 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학교, 예술교 등 특수목적교를 늘리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초연설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육학)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교육개혁은 국민과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육 개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토론회와 같은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꾸준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알림

추석으로 인해 다음 신문은 9월 30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

보리심

깊은 산속 어떤 절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 스님은 돌부처님 네 분을 만들어서 네 군데 법당에 모셨다.

하나는 눈만 있는 눈부처님, 하나는 귀만 있는 귀부처님, 하나는 입만 있는 입부처님, 하나는 코만 있는 코부처님이었다.

그리고는 참배객들에게 "자, 소원을 빌분은 귀부처님 계시는 법당에 들어가시고, 부처님의 참 뜻을 들으려면 입부처님 법당,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려면

눈부처님 법당, 불향(佛香)을 맡으려면 코부처님이 계신 법당으로 들어가시오"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귀부처님 계신 법당은 날마다 들끓는 사람으로 문턱이 닳았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말하고 싶어했지, 듣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책에서 소개한 우화이다.

이처럼 우리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을 모르고, 자신을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항상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을 '아만심(我慢心)'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만 잘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항상 상대를 나보다 못하다고 업신여기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 받으면 아주 싫어한다. 물론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면서, 실상 그 마음 속은 편안치가 않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마음 속에 아ما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현 정권의 고집부리기도 바로 국민정서를 돌아보지 않고,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예라고 생각된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축구에서처럼 엘로카드를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계환
불교대 불교학과

엘로카드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 정지섭 (사과대1)
- ▲ 한숙희 (생자대1)
- ▲ 류수경 (법정대1)
- ▲ 김병권 (상경대1)

- 이상 9월 16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단지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시설도 장애인에게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단지 앉아서 다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이들도 이제 버스, 지하철을 맘 편히 타고 싶습니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3면 시간강사 문제와 대안



대학교육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시간강사. 이들이 처한 현실과 해결책 등에 대해 알아 본다.

4면 여중생 압사사건 르포

미군 장갑차 사고 발생 100일을 맞아 사건 현장을 돌아본다.

8면 대학생들 말한다

대학생에 대한 세대별 인식을 알아본다.

수요자 중심 설계 · 진료 특성화

불교병원, 4개동 내부 연결 - 양·한방 협진 체제구축

불교병원은 본교 6번째 부속병원으로 처음 시도하는 양·한방 종합 병원이다. 병원 내부구조의 특징과 진료 특성화 등에 대해 알아본다.

▲구조 및 내부 시설=건물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됐다. 병원구조를 살펴보면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중증질환동 △장례동 등 4개동의 내부가 연결되어 이용자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시설사용이 가능하다. 입원동은 △VIP병실 △1인실 △2인실 △5인실로 구성됐으며 1인실은 단일층에 배치됐고, 50여 병상은 간병인 없는 병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창선 건설본부장은 "병상마다 자동화 시스템이 구비돼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응급실 근접거리에 방사선 촬영실, 소수술실, 병리실을 배치해 동선을 최소화했다. ▲진료 특성화=질병의 성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상의한 후 양·한방 협진체제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 고혈압·뇌졸중 치료 센터, 심·혈관 센터, 암치료 센터를 설치하고 성

인병·노인질환 전문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뉴욕주립대·서울대학교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어 장단기적으로 교수·의료진 교류·병원 행정분야 등의 정보교관으로 의료전문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 시설=MRI(자기공명영상) 등 방사선 장비로 촬영한 데이터를 필름을 통하지 않고 컴퓨터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한 의학영상저장전송 시스템(PACS)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동국의료원 기획감사과의 한 관계자는 "환자 중심의 의

료시설과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정보전산화를 통해 예약·차트기록 등의 원무행정을 전산처리하고, 병원 내 모든 시설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운영해 부수적 업무를 최소화했다. ▲의대·한의대 실습환경=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수술장면을 CCTV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실습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건물 내 세미나실과 강당을 설치해 학습공간을 확보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회전무대

불법 영업

○...중앙도서관 1층에는 외부 학생들이 안암리에 이용하는 비밀통로가 있다는데. 알아보니 몇몇 학생들이 학생증을 도서관 밖으로 건네기 위해 남자화장실 1층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놓은 것이라고. 찢어진 방충망을 새로 교체함에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 때문에 허사가 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방충망을 찢은 당신, 당신을 학생증 대여업자로 임명합니다."

수면대

○...삼복원 카운터 옆에 설치된 세면대에 손을 씻으면 간 학생들은 물상이 되어 돌아오기 일쑤라는데. 이유인즉 세면대를 철거하기로 해 물공급이 중단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뒤 이를 모르는 학생들이 헛걸음 하는 것이라고. 사용하지 않기로 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사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삼복원의 신감각 인테리어, 물이 나오지 않는 세면대를 아십니까."

지역차별

○...문화관과 학술관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교가를 들으면 적이었다고 호소하는 일이 유난히 많았는데. 알아보니 케이블 공사가 복잡한 것 등을 이유로 스피커가 설치돼 있지 않아 방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니. 더구나 이들은 공지사항이나 교육 방송 등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악 내 또 하나의 지역차별, 방송에 반영되다(!)!"

흔들바위

○...요즘 삼복원을 출입하는 학생들은 균형을 잃어 당황하기 일쑤라는데. 이유인즉 삼복원 매점 방향 출입문 앞 대리석 바닥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무심코 이를 밟은 학생들은 몸의 중심을 잃어 음료수나 커피 등을 쏟게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삼복원 신종 놀이기구 탄생! 단, 음료수 반입은 금합니다."

'반성폭력 학칙 개정' 토론회

피해자 중심 학칙개정 필요

총여, 시행세칙 마련·상담소 독립 등 주장

총여학생회(회장=허고은·중문3)가 지난 12일 정보문화관에서 '반성폭력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세칙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허고은 총여학생회장은 개정 원칙에 대해 "반성폭력학칙은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사건이 조사·심의 및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은 객관적 증거 확보 미흡 등으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총여학생회는 '피해자권리 확보와 비밀유지의 의무'항을 추가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를 독립기구화하고 전문상담원 위촉, 예산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운지(영화영사4) 부총여학생회장은 "현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여학생실은 이외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독립기구 설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된 상담소가 설치되면 사건해결뿐 아니라 예방교육·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등 모든 업무를 포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총여학생회는 학칙 적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행세칙 마련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시행세칙(가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신고 절차 △징계와 처벌의 종류 △성폭력 대책위(이하 대책위)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대책위 구성=교수·직원·학생의 비율을 동등하게 한다 △학칙 적용범위=시간강사·외국인 교수 등 본교 학칙, 인사규정, 법인정관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한다(현,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K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은 시행세칙 부재와 추상적 내용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여학생회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여학생실장과 논의한 후 오는 10월 열리는 성폭력 대책위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환호... 지난 11일 개막한 정보문화축전이 13일 막을 내렸다. 폐막제는 시상식과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공연자와 하나가 돼 축제의 마지막을 즐겼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한가위 학교에서 먼저 즐기세요" 학복위, 민속놀이·전통음식 제공 등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임형준·중문4)는 오는 18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한가위 한마당을 진행한다. 상설전시마당과 상설놀이마당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설전시마당은 오전 11시부터 △송편을 비롯한 각종 떡과 차 제공 △이복술 전시 및 판매 △민복 판매 등으로 이뤄지며, 상설놀이마당은 12시 30분 단과대 풍물패 연합의 갈매놀이로 시작된다. △세발자전거 타기 △널뛰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줄다리기 대회는 각 과 학생회 및 단위별로 접수하며 1등을 차지

한 단위에게는 상품으로 식권 100장이 증정될 예정이다.

수강신청과목 취소

수강신청과목 취소가 오는 26일부터 2일간 진행된다. 수강신청과목 취소는 교과과에서 취소신청서를 받은 후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과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강신청 취소는 학년별 최저 이수학점(12학점, 단 4학년은 3학점) 이상까지 가능하다.

추계봉사단 720명 지원

영동수해복구로 예비교육

참사람봉사단(단장=김용기·수학교육)은 가을학기 봉사단원을 총 720명 선발했다. 이번 가을학기 봉사단원은 지난 7일 충북 영동지역 수해복구로 예비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33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에게는 1학점이 인정된다. 한편, 봉사단 30여명은 추석을 맞아 오는 18, 19일 중구 내에 있는 △보육시설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 70여 세대를 방문한다.

사법고시 1차 합격자 발표

본교생 33명 합격

제44회 사법고시와 제16회 군법무관시험 1차 합격자가 지난 5월 발표됐다. 사법고시에는 김동준(법3) 외 10명의 재학생과 김복선(법84졸) 외 21명의 동문 등 총 33명이 합격했다. 또한 군법무관시험에는 김상선(법4) 외 2명이 합격했다. 한편, 정일선(경행4) 외 13명이 제46회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졸업앨범 재촬영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종희·정보통신3)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졸업앨범 재촬영을 진행한다.

데이터로 본 동국' 발간

학사제도 등 변화 통계

기획인사처(처장=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심사팀은 '데이터로 본 동국대학교의 변화'를 발간했다. 97년, 99년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된 이 책은 99년부터 3년 간의 본교 변화 상을 △교·직원 △학생 △학사 △연구 △행·재정 △교육시설 △대학원 등으로 세분화해 통계를 산출했다.

사회봉사활동 참가안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 동국인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98년 4월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우리 지역 내 무의탁노인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지속되는 경제위기가 생활속에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생계를 꾸려 가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더 가중된 생활난에 처해 모진 외로움과 소외감, 슬픔과 고통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우리 교유의 열렬한 추석을 맞이하여 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국인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온기와 힘이 되어 드리고자 라오니 교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봉사활동 참가 방법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02. 9. 11 ~ 연중 계속
나. 후원금 및 물품지원 봉사활동

- (1) 후원금봉사 : 봉사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해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봉사대상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순으로 선정함.)
- (2) 물품 봉사 : 생활필수품, 의류, 의약품 등
* 물품봉사는 동국참사람봉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령해 가겠습니다.

다. 참여 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제출(매월 급여에서 공제)
* 이웃돕기 모금사업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후원금액(월3,000원이상), 후원 기간 등을 적어 핸드오프스의 전자우편(수신 : 최정숙)이나 신청서를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8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4월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구관내 이웃돕기 활동에 동참 하셔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2000여분의 여러 교직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내주시 정성어린 후원금은 봉사대상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마음으로 전달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문의 전화 2260-3049 동국참사람봉사단 - 최 정 숙 -

2003 여군사관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3. 2월 졸업 예정자
 - 2003. 10. 1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의 여자(1975. 10. 1 ~ 1983. 9. 30)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9. 2 ~ 10. 19
4.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입수능(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 마. 천연색 사진(4×5cm) 3매
 - 바. 효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3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수능/대학성적)	2002. 9. 2 - 11. 9
2 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2002. 11. 11 - 12. 14
3 차	신원조회	2002. 12. 16 - 2003. 1. 1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1. 24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직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앞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2003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3. 2월 졸업 예정자
 - 2003. 10. 1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의 남자(1975. 10. 1 ~ 1983. 9. 30)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9. 16 ~ 11. 2
4.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입수능(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
 - 마. 천연색 사진(4×5cm) 3매
 - 바. 효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2002. 9. 16 - 11. 23
2 차	인성검사, 신원조회	2002. 12. 30 - 2003. 2. 22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3. 12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직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앞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대학교육 업고가는 '떠돌이 교수'

낮은 강사료에 여러대학 전전 ... 교육의 질 위해 처우개선 필요

'강사 11, 강사 42...'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이름 대신 숫자로 표기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엄연히 교수님으로 불리는 시간 강사들이지만 이들을 '비정규 노동자'로 바라보는 게 일 반적인 입장이다.

대학 교육에서 시간 강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전공 과정은 좀 덜한 편이지만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약 60%를 육박하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에 출강하는 인원은 약 5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3만명 정도는 시간 강사를 전업으로 삼고 있다. 시간 강사는 더 이상 교수가 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과정이 아닌 직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는 나아 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평균 수당은 시간당 2만5천원 선. 국립대나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설립된 성균관대나 영남대 등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시간당 3만2천원 이상)이다. 이를 제외한 대학에서는 대부분 2만5천원 미만이며, IMF 이후

부터는 이조차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5천원을 기준으로 주 6시간 정도 강의할 경우 시간 강사들의 한달 평균 강의료는 월 60만원. 강사료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번역이나 과외 등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교수들의 평균 월급은 시간 강사들의 10배에 달하는 약 450~500만원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간 강사와 교수 간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더욱이 법적으로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점은 열악한 시간 강사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열악한 시간 강사들의 처지는 강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수들의 법정강의시간은 주 9시간. 그 이상이 될 경우 교육과 연구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반면 시간 강사는 보통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 강의 시간에 맞추어 학교를 옮겨 다니며 강의를 하다보니 자연히 강의 준비 시간은 줄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일이 다반사인 현 강의실의 모습은 이들에게 질문에 답해줄 시간적인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학 현장에서 강의하는 교육자, 학문을

하는 학자인 시간 강사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배고픈 사람들'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소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염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지난 7월 1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조원들이 교원신분 확보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본교 시간강사 현황

교양과목 절반이상 시간강사 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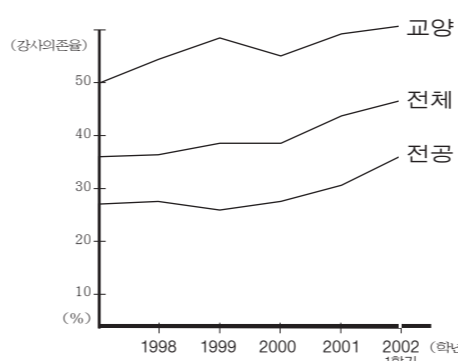
본교 교양 수업의 절반 이상은 '교수 아닌 교수님'들이 맡고 있다. 이번 학기 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수업의 비중은 전체 44.3%, 교양강좌와 63.3%, 전공수업 32.7%다. 본교의 시간강사 의존율은 최근 몇 년간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강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차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처우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강사료의 경우 본교는 올해 시간당 2만3천100원(학부 주간수업 기준)을 책정, 사립대 전체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교는 강사료 책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해 교직원 임금 변동폭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 시간강사들은 큰 불편은 없는 편이다. 도서관은 특별 열람증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혜택도 전임교수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이 학교에서 머물 곳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단과대에 교·강사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단과대는 교학과 사무실 안에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공간이 전부다. 외국어영역 교양수업을 맡고 있는 한 시간강사는 "교·강사실이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행정부서 한켠에 마련돼 있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들은 교·강사실에서 출강표만 확인하는 정도다. 반면 교



학과와 별도로 개설돼 있는 불교대와 야간 강좌 교·강사실의 경우 수업준비나 휴식 등 강사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교·강사실 문제는 본교의 고질적인 공간 부족과 맞물려 있다. 때문에 "교수 연구실이나 학생자치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강사들을 위한 공간 확대가 말이 되느냐"는 식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간강사는 "학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학기 교양수업 강사의존율이 60%라는 것은 본교의 교육영역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학교측은 시간강사의 처우문제가 단순히 계약관계가 아닌 교육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사설

병역거부자 외면 말아야

최근 대학생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불교신자로서 처음으로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오태양 씨에 이어 임영 예정자와 예비 병역거부자 17명의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병역거부 공개 선언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특정 종교인의 문제로 국한돼 여겨졌던 병역거부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윤리적 이유로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역비리와 군 의문사 문제가 군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병역거부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혀 주위의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매년 명령불복종 죄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600여명의 사람들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범죄자가 되기를 자청한다는 사실은 병역거부문제가 결코 소수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봉사제도로써의 대체복무제도가 우려하는 것처럼 병역비리와 병역기피의 온상이 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공익근무나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강도를 높인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진실로 거부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기관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도가 현재 미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할 인적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한 30여 개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군대 내에서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의 확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긍정적인 변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견 존중으로 비롯되는 다양성의 인정과 형성의 조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원칙이다. 정부는 다양성과 형성의 원칙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전제로 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강사도 교원에 포함해야"

해결방안 모색

학문을 가르치는 '강사' 인지, 강의를 맡기 위해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는 '보따리 장수'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시간강사의 현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교·강사실 확충 등 대학의 노력 필요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 전입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 했다. 또한 내년에 도시간 강사료를 3만9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에도 처우 개선과 교원 증원을 권고하고 결과물 재정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시간당 강의료를 몇 천원 올린다고 해서 시간강사들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대 강사료는 현 정부 들어서 예전보다 많이 인상된 편이지만, 사립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교육부 한석동 사무관은 "사립대들이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게 할 만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이와 관련해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 임성운 위원장은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근본적인 개선책"이라 주장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14조는 대학 교원을 총장,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는 여기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한 학기 단위의 불안한 고용관계로 인한 신분 불안정 문제가 해소되고 강사료도 적정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 전망 했다.

하지만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수정하거나 시간강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지라도 각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의 연구조건과 교육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강사실 확충, 도서관 이용 보장 등 연구 환경 개선 △방학 중에도 연구비 지급 등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들이 현 상황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들로 꼽힌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한, 부편집장: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진,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057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준공식·축하공연

동국대학교 의대·한의대 부속 불교병원의 마침내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축하공연을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21세기 최첨단 양·한병형진 전문병원 ■

- 일시: 2002년 9월 27일(금)
- 장소: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병원 현장
- 프로그램: - 식전행사: 사물놀이 13:30
- 1부: 준공식 14:00
- 2부: 축하공연 15:30
- 공연출연진: 김수희, 김홍국, 설운도, 송대관, 이은하, 장미화, 현철
- 교통편안내: 158번 좌석버스·일반버스, 158-5번 일반버스, 567번 좌석버스, 33번 마을버스, 지하철 3호선 원당역(대중교통 환승)
- 문의: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2260-3300)

동국대학교 불교병원건립기금동참안내 (2260-3300 ARS 060-7000-119)

21세기 우리의 테마 - 과학동국! 의학동국!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2003학년도 전기)

모집학과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한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영행정, 사회, 북한, 신문방송,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 호텔경영, 농업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영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 호텔경영, 농업경제, 지리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사, 미술사, 철, 윤리문화,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영행정, 사회, 북한, 경제, 경영, 무역, 회계, 정보관리, ★관광, 호텔경영,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생물, ★조경, 가정, ★간호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생물, 가정	수, 물리, 화, 통계, 반도체과학, 농, 임, 생물, 가정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정보통신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정보통신공, ★전자계산, ★안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환경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정보통신공, ★전자계산, ★안전공
의약계	연극영화, 미술, 체육	연극영화, 체육	연극영화, 체육
학과간협동과정	★한의, ★의, 멀티미디어(연극영화, 경영, 전자공, 컴퓨터공학협동과정) ★전자상거래(경제학, 국제통상학, 정보산업학협동과정)	연극영화, 경영, 전자공, 컴퓨터공학협동과정	연극영화, 체육

★ 표기학과는 경주캠퍼스에 개설된 학과임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 21(BK21) 사업 선정학과 및 SRC, ERC 관련학과

분야	사업단(팀) 및 연구센터	선정(관련)학과	특전
인문사회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	불교학과	학과별 선별비를 거쳐 장학금 지급
핵심사업	5개 사업팀	연극영화, 화, 전자공, 토목환경공, 화학공학	학과별 선별비를 거쳐 장학금 지급
SRC	양자기술반도체 연구센터	물리, 반도체과학	참여 대학원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ERC	멀티미디어기술 연구센터	전자공학과	학과별 선별비를 거쳐 장학금 지급

모집인원 전학과 전체별 총 500명 내외(석·박사 포함)

일시 2002. 9. 16(월) ~ 9. 27(금),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guk.edu/gs)

신청방법 1. 서울은 화순과충 대학원교과부, 경주는 진흥과충 사회과학대학원 교과부(단, 월요일 17시 이후 및 토·일요일은 화순과(서울), 진흥과(경주) 수락실에서 교부함)
2.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gs)에서 원서를 다운(Down)받아 지원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장소
2002. 9. 23(월) ~ 9. 26(목), www.dongguk.edu/gs
2002. 9. 25(수) ~ 9. 27(금) - 서울: 화순과 3층 일반대학원 교과부
- 경주: 진흥과 1층 사회과학대학원 교과부

지원서류 - 인터넷 접수시 입학원서, 학업계획서, 광기초자료를 필수 사항이며, 기타 지원자 사진(35x45), 성적표,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제적)증명서, 추천서, 실적증명서(승려에 한함)는 전형 당일 구술시험 시간 전에 학과 전형위원(소교과)에게 제출한 후 수험표를 교부받으시기 바람(제출서류 하단에 지원학과 및 성명 기재)
- 인터넷 접수자는 2002. 9. 26(목) 이후 접수현황을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www.dongguk.edu/gs)

면접장소 대학원 홈페이지 및 대학원 교과부 게시판에 공고(면접시험)은 학과 소속 캠퍼스별로 실시

기타 - 각종 교외장학, 조교장학, 출장장학, 고시장학, 공인계정장학 등 다수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조할 것

전형일 2002. 10. 12(토) 10:00부터

인터넷주소 : www.dongguk.edu/gs 대학원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2260-3094 ~ 5,3116, F'ax 2260-3685)로 문의바람.

동약로

선로위의 외침



“치지지지 싸아아~” 지하철 차량이 육중한 쇳소리를 내며 돌진해 오는 시청역 선로 위, 지난 11일 본교 장애인인권행동위원회(이하 행동위) 강성진(사회2) 군과 장애인 인권연대 소속 학생들이 쇳소리를 몸에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결국 지하철은 멈췄고 이 시간 시청역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이처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선로를 점거한 이유는 뭘까. 지난 5월, 발산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한 장애인인 리프트에서 떨어져 사망 사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서울시가 수 차례 지적된 리프트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설치, 운행한 결과였다.

“각자 조심한다면 안전합니다. 혹시 그 분의 실수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서울시가 리프트 사망 사고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발산역 사고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단식농성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동권연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인 사과내용이 빠져있고 제시한 승강기 설치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선로점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연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은 그들 앞에서 멈춰 섰지만 곧 무장경찰이 그들을 둘러쌌고, 강성진 군을 포함한 이동권연대 소속 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어 대부분 48시간동안 갇혀있어야 했다.

그들이 상식 밖 행동을 했던 이유,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를 빼앗긴 데 대한 마지막 표현 방법이었던 것은 아닐까. 서울시가 불법시위를 보고싶지 않다면 근본적인 부분부터 생각해 볼 일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여중생 압사사건 현장르포

미션·효순의 상처, 가슴속 '반미'로 남다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여중생 압사사고 현장.

경기도 양주시 효촌리 쓰르래미 고개, 풀섀 한쪽에 국화 꽃다발들이 놓여있다. 그 너머에 '꽃다운 효순이와 미션이의 꿈이 피어나기를...' 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 꽃말. 지난 6월 13 일 두 여중생, 신희순 심미선 양이 케도차량에 깔려 사망한 장소다.

수풀 뒤에서는 미선양의 아버지가 이들의 추모비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애들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요. 울 추석엔 미선이 추모비에 음료수와 꽃이라도 갖다 놔야 겠지요.”

두 가족에게 이번 추석은 미선이, 효순이 없이 지내는 첫 명절이다. 게다가 추석연휴 첫 날인 20일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재판권 이양도, 부시 대통령의 사과도, 사건의 자세한 전말도 알아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애쓰는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 사건을 덮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는 않는데 계속 가슴 아픈 부분을 들추어내야 하나까요.”

사건해결을 위해 활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다.



지난 달 7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재판권 이

오랜 여정의 성과

양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재판권 이양 요구 시위를 벌이고, 미 국방부에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한번 결정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케도차량을 운전했던 마크워커 병장은 결국 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미 사건을 단순한 과실치사로 규정한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단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크게 무게를 두기보다는 이번 여중생 장갑차 사건을 통해 반미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사후에 한번씩은 이곳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시민들 호응이 좋았어요.”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 경기북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황학택 실천단장이 제2사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통 시민들은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이나 모금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대위가 천막농성을 벌일 때에는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찾아왔다. 제일시장은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서명운동, 선전전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던 곳이다. 시장 속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의정부 시민뿐 아니라 동두천, 양주 등 주변 지역 민들까지 북적거리기 때문이다.

“모두들 적극적이었죠. 떡볶이 사먹다가 뛰어가서 서명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일시장 가운데서 떡볶이 노점을 하는 신 씨(65)는 제일시장 사람들 모두 서명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다. 사건이 발생 후 두 세 달이 지나면서 점차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갑차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중생 압사 사건 이후 “미군을 보면 분노를 느

낀다”고 말하던 이들도 사건결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차피 잘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으니. 열심히 한 사람들만 불쌍한 거죠”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발가게를 하고 있는 한 씨(35)는 다소 체면 섞인 말을 던진다.

얼마 전 정부는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

사건해결 가로막는 정부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적소리로 시위를 대신한 택시운전사들에게 벌금을 물려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국 시민사회를 연구하던 어느 일본 유학생은 “오히려 한국 시민단체들의 대응은 클린턴의 사과를 받아냈던 오키나와 주일미군 지라드 사건 때보다 더욱 효율적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두 나라가 정반대”라고 말했다.

여중생 압사사건 이후 100일, 지난 기간동안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내가 미군이 잘못한 것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되잖아요.” ‘미선이 효순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어느 중앙중학생의 말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의정부 광장에 위치한 여중생 압사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여중생 압사사건, 100일간의 기록

- △6월 13일 = 경기도 양주에서 중학생 신희순, 심미선 양이 도로 옆 갓길을 걸어가다가 마크워커 병장이 몰던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
- △6월 19일 = 미2사단 한미합동수사결과 발표, 가족에게 사과.
- △7월 4일 = 대책위, 법무부에 '1차적 미군형 사재판권 포기요청서' 전달.
- △7월 7일 = 마크 워커 병장 출국.
- △7월 8일 = 사건 관련 미군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두 거부함.

- △7월 9일 =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합동 보고대회 열림. 부시 공개사과 요구.
- △7월 10일 = 법무부,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공식 요청.
- △7월 29일 = 여중생 사건 관련 미군 6명 의정부 지청에 출두. 주한미군사령부 재판권 포기할 의사 없다고 발표.
- △8월 13일 = 대책위 관계자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 받음. 항의 기자회견 진행.
- △9월 14일 = 미군, 대책위 대표 폭행.



지난 12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기자회견

“사람에게 총 겨눌 수 없다”

대체복무제 구체적 논의 계속돼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권리인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인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지난 98년 유엔인권위에서 인정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무려 1천8백 여명에 이른다.

최근 또 한 명의 학생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나동혁(26, 서울대) 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선언 기자회견’이 지난 12일 서울 지방 병무청 앞에서 진행된 것이다. 나씨는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총칼을 짊어지게 하는 징병제를 따를 수 없다”며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법의 한도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나씨는 병역거부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전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27, 서울교대) 씨, 그 뒤를 이은 유호근(27, 숭실대), 임치운(24, 동아대) 씨 등에 이어 네 번째 공개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됐다.

한편, 이날 나씨 외에 대학생 예비 병역거부 선언자 14명 대표선언이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서강대, 항공대 등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아직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다. 14명을 대표한 염창근(경희대 대학원) 씨는 “사람을 향해 총칼을 겨누는 연습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다가올 입영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선언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학생이 병역거부의사를 밝히는 최초의 선언인 동시에 집단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병역거부선언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어서 이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여성해방연대, 사회당 등은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몇몇 장애인 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지지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올해 초부터 진행돼온 양심적 병역거부 10만인 서명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비리와 군 의사사건 등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선언을 통해 대체복무제 개선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 qwertewq@dongguk.edu

이북의 학술동향 들여다보기

1. 과학
2. 문학
3. 역사학
4. 의학

지난 8.15 민족공동행사에서 남북이 함께 학술토론회를 여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의 학술교류가 극히 드물게 이뤄졌던 것으로 볼 때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남북 정보기술(IT)의 협력이 강조되고 그 분야의 교류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동 학술 행사는 이후 남북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북의 학술 동향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사 학술부에서는 이북의 학술 동향을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 학술교류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임기중 교수의
가사문학이야기 (2)**

스님들의 가사와 새로운 글쓰기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말과 우리글이다. 말과 글을 방편으로 삼지 않고서는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말은 있었지만 우리의 고유한 글자는 없었다. 그래서 원효대사 때부터 중국 글자를 빌려 알기 쉬운 우리식 글자 '이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교의 생각하기가 세속 때까지 즐기게 이어져 마침내 한글이 창제된다. 한글을 창제하자마자 먼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지은 것은 그러한 연유다. 고려말 나옹스님은 우리말과 우리글과 우리식 글자로 대중들의 가슴속에 쉽게 파고 들 수 있는 불교노래를 짓는다. 이것이 한국 가사 장르의 서막을 여는 '서왕가'라는 작품이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글 쓰기가 시작된다. 우리말과 우리식 글자로 1줄을 4마디로 삼아서 계속 이어 쓰는 새로운 방법의 글 쓰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곧 가사체다. 가사체는 한국인의 체질을 가장 잘 맞는 형식의 글 쓰기다. 그래서 시조, 판소리, 소설, 제문, 잡가 등이 가사체로 쓰였으며 불가, 유가, 도가와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의 포교문이 모두 가사체로 쓰여졌다.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지은 1줄이 4마디로 된 불교노래를 불교가사라고 한다. 불교가사는 새로운 작시법으로 쓴 시이다. 그런 글 쓰기의 방법을 범문구조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가사 이전 향가 시대의 시 쓰기에서는 점안법이 라는 작시법을 즐겨 썼다. 가령 제망매가의 마지막 단락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둑아 기다리련다"에서 미타찰이란 시어를 놓는 시 짓기 같은 것이 점안법의 작시법이다. 미타찰이란 한 시어가 제망매가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다가 가사체가 출현하면서 범문구조라는 새로운 작시법이 등장한다. 범문구조란 형식과 내용이 치밀하게 맞물려 쉽게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순환구조의 일종이다. 이러한 작시법은 아주 독창적인 새로운 글 쓰기 방법이다.

그런 작시법으로 쓴 불교가사 몇 줄을 들어보기도 한다. 표충구조는 "어와 세상사람들이 이내말씀 들어보소"로 시작되어 "나무아미타불"로 끝난다. 이 시작과 끝을 연결하여 범문처럼 무한히 반복적으로 굴러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심층구조는 "하 나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 되단 말은"처럼 우리말만으로 범문의 고리를 만들거나, "배꼽흔나 발을주어 餓死救濟(아사구제) 하였는가 혈벗은이 옷을주어 求難功德(구난공덕) 하였는가"처럼 순우리말과 한자말을 연결하여 범문의 고리를 만들어 돌아가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표충과 심층의 범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글 쓰기 방법을 만들어 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의 소통이 원활해 지고 가사를 읽거나 읊거나 노래하는 이의 정서에 범문의 날이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지혜로운 글 쓰기 방법을 개발해 냈다.

동양의학 중심으로 서양의학과 결합 도모

민간요법과 레이저·반도체 이용한 고려의치료기구 개발해

"이 사람은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머리가 크고 얼굴은 둥근편이며 근육은 비교적 적다. 또한 이마가 넓고 눈은 빛나며 기대거나 높기를 좋아하며 오랫동안 걸지를 못한다. 성품은 사교력이 뛰어나고 누구와도 잘 사귀며 판단력과 진취적인 기질이 있다. 영웅심과 자존심이 강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분노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 사람은 사상의학을 창안한 이재마 선생 그리고 사상(태양, 태음, 소양, 소음) 중 태양인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사상의학은 인간의 체질을 위모, 심성 등의 특징을 통해 네 분류로 나눠 각각의 체질에 적합한 치료법과 음식을 제시하는 한방 의학을 일컫는다.

'사상'으로 치료하는 고려의학

최근 동양의학(이하 동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집중 조명된 사상의학은 일찍이 이북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 이북은 동의학 연구소를 설립해 동의학의 정진과 기술에 입각한 고려의학의 발전시켜왔다.

고려의학은 사람의 상태를 '사상'으로 분류해 치료법을 찾는다. 치료약으로 식물, 동물 등 1천 400여 종이 약재로 쓰이며, 침뜸, 부황 등 5만여 가지 처방과 치료·시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방 치료율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처럼 이북 의학은 대부분의 경우 동의학을 활용하며, 양의학(서양의학)은 동의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 이북의 의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동의학부이며,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동의학에 우위를 둔 한·양방간의

협진이 철저히 이루어진다. 양의사는 검사를 통해 일정한 병명이 나오는 것에 한해서만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약을 처방할 뿐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는 동의사가 거의 주관한다.

장수의학 연구 발달

이북 의학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장수의학연구다. 장수의학연구는 김일성 수령의 무병 장수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건립된 장수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실험을 기반으로 확립됐다.

장수의학연구를 통해 달성한 대표적인 성과는 '장명'이라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1995년 제23차 제네바 국제발명 새기술 새제품 전시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이 약의 국제명칭은 '면역조절다당체 피세포진'으로 심사위원들이 "이 약의 효능을 시험해 본 결과 종양에 대한 항암효과 및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탁월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이북 의학연구의 중심기관은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원인 의학과학연구원이다. 의학과학 연구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 위생연구소, 중앙연구소 등 산하에 23개의 연구소와 함께 의약품 자재관리소, 의료가기 생산공장 등을 두고 각종 치료기 개발과 예방의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올해 의학과학연구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의약품 및 치료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연구소별로 연구원들이 전념하고 있는 과학연구사업은 암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진단법, 치료기 개발과 방사선 치료 장치의 컴퓨터화 등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악물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 중앙연구소는 방사선의학연구소와 함께 암에 대한 연구사업 및 치료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요즘 이북은 민간요법을 바탕으로 레이저와 반도체를 이용한 새로운 고려의치료기구를 개발해 서양의학과 결합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또한 민간요법이 거의 사라진 이남과 달리 아직도 집집마다 대대로 민간요법이 전승되고 있다. 물론 이북 주민이 돈이 없어서 자연요법에 의존하는 면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구문물의 일방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진 의료 장비의 빈약함과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어쩔 수 없이 방치되는 환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려의학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이북 의료계의 노력만큼은 민족의학사 측면에서 크게 평가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위로부터 '귀철혈에 의한 진단예보기구'로 진단하는 모습, 생활의술 '침뜸'을 뜨는 모습, 암치료에 효과가 큰 의약품 '장명'.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백중현 교수를 만나

"우리 삶과 사상 담은 학문은 우리말로 표현해 참뜻 살려내야"



우리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던 시기는 아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즈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즈음일 것이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말을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요즘 역시 우리말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 250여 명이 지난해 '우리말로 학문하기(회장=이기상·한국외대 철학)'라는 모임을 창설, 우리학문에서 우리말이 지닌 중요성을 알리고 나섰다. 최근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창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백중현(서울대 철학) 교수를 만나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지닌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모임을 만들게 된 취지가 우리학문의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학계에서는 학문의 식민지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것은 선진학문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또한 우리의 실정과 언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문의 주체성을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배어 있는 우리의 언어로 찾고자 하는 것이고, 진실로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면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은 사실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우리말로 학문하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우리말로 학문하는 것이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미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학술활동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말이나 기타 외래어를 모두 배제하지는 않는다. 외국어나 외국학문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말로 표현해야 할 것,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삶과 사상을 담은 학문은 영어도, 한자도 아닌 우리말로 표현해야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물론 그속에 내재된 참뜻까지 살려낼 수 있다. 역으로, 우리말이 아니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푸르스름하다'는 색채어나 '정'이라는 우리 고유의 감정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 최근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도 발간했다는데.

= 지난해 10월 발족한 뒤 세 차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우리학문의 가능성 모색과 시론'이란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23일에는 인문교양학술지 '사이' 창간호를 발간했다.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삶과 삶, 삶과 삶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뜻을 지닌 만큼 앞으로 이를 통해 우리말 학문하기의 각 분야별 사

례 등 모임의 성과를 담아내 대중화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 앞으로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또다른 의미가 있다면 어려운 번역용어나 전문용어를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함으로써 학자와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혀간다는 것에 있다. 이것이 또한 우리말로 학문을 하면서 추구해야할 점인 동시에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이 한자로 쓰여 있고, 우리말은 기껏해야 조사나 어미로만 사용된 현법책은 왜 반드시 한자로 쓰여져야만 하는가. 특정분야,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말로 학문을 해서 실령 진리에 이른다 해도 그것은 진리의 독과점체제만 더욱 굳건히 할 뿐이다.

학문은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말로 학문하기'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학문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야 할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번역·전문용어를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
특정분야·소수에 의한
학문이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우리말 학문하기' 돼야**

21세기 지식인 사전

사회학자 이매뉴얼 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곧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6세기 이래 지속되어온 근대 세계 체제가 또다른 세계체제로 넘어가는 이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73)은 그의 저서 '이행의 시대'를 통해 현 사회체제를 이렇게 진단한다. 또한 이러한 그의 견해는 현재까지 집필 중에 있는 '근대세계체제론'이 뒷받침한다.

193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월러스틴은 콜롬비아대에서 사회학을 전공, 그곳에서 10년 간 교수로 재직하지만 68년에 참여한 학생운동으로 대학 강단을 떠나게 된다. 이후 70년 스탠포드대의 행동과학연구소, 71년 캐나다 맥길대를 거쳐 76년부터는 미국 뉴욕주립대 교수로 재직해오고 있다.

또한 세계체제론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는 아프리카 신생국의 민족해방 문제 중 주로 아프리카지역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아프리카 문제가 단순히 내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주요국가가 해계모니를 장악한 세계체제의 팽창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있다는 결과를 얻고 세계체제론으로 학문적 관심을 옮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정치 경제적 제반 과정, 지배적 이데올로기, 지식구조 연구를 포괄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은 서양사학, 국제정치학, 사회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소나기

한가위, 고향가는 내 마음



△니들이 고향을 알아?
 △정처 수배자도 가족과 마음만은 함께 있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한가위 고향 가고 싶은 내 마음.
 △연휴가 짧아서 아쉽다.
 △긴 여정 일말의 휴식.
 △고향이 너무 멀어서 ~ 학교 오기 싫을 것 같애.
 △고향이 없다. R.U 외제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지만 마음은 가볍다.
 △착잡하다. Re: 고향이 서울이라 갈 데 없음.
 △난 울 집이 큰집이라 매년 명절 때 어디 가본 적이 없음. 게다가 이번엔 신문까지 들려서 더 갈 곳이 없는데...
 △우리 집 수해 피해 있었는데.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추석이 되길~
 △수업을 빠져 아쉽군. (이러다가 얻어맞지) 연휴가 3일이라 더 아쉽다.
 △겨울에는 하얗고 찬 눈을 맞지요? 전 울 가을 따스한 어머니 눈길 맞으려 고향 갑니다.
 △안되나요? 나 고향가면 ~ 귀성길 차량정체 방해받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요즘 부쩍 찬 가을 바람이 옹기리를 스쳐간다. 만나러 가자지 너의 영원한 연인 어머니를...
 △한가위가 대목으로 불리는 이유. 화려한 한가위 선물 때문인데, 그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 한 점서 어때요?
 △가이해. 근심, 걱정, 특특, 털고, 우리 모두 몇 일만 더 버티면 '집으로...'
 △아니! 연휴가 고작 3일.
 △이건 조물주의 농간이닷!
 △'귀성(?)'을 보는 또 하나의 눈.
 △'니 아이(THE EYE)'
 △다행이다. 목요일에 학교에서 귀성 버스가 제공된다는데... 전쟁에 휩쓸리진 않겠군.
 △수금 대상자 명단 뽕고 가자!
 △조카들아, 날 찾지마.
 △또 시집가라는 소리 얼마나 들을까?
 △저렴한 귀성 차량에, 애인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학생회관 김치가 그리워 질 것 같애.
 △앗싸! 용돈 대학의 기회가 온다!
 △밤 따라 가세.
 △성묘 길은 천리 길.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헤스퍼리스 백상 예술체전우승 미리 축하합니다.
 △이관사관 화이트팅 샤테 전에 설장구 마스터하사.
 △경훈 (17일) 생일 정말 축하한다. 잘 살아보자. -D.K
 △고니랑 사귀지 200일이 되었습니다. -SK
 △숨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해. -PJS
 △추연이 100일 축하한다.
 △늦었지만 9.11 미테러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태수형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현이형, 정욱이형, 필수야! 농활 갔다 오느라 수고했다. -석
 △수용야 2년 2개월 동안 수고했다!!
 △딱 걸렸어! 카페 마당밥!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50명 초과달성 하길.

열심히 하시다

△동고동락 총학생회! 백상 체전 준비 잘 하세요. 특히 문화국 파이팅!
 △규혁아 인간이 되거라!
 △02독일학과 여러분 2학기 열심히 하시다. -잘생긴 정규
 △정원아 수업시간 졸지 말구 수업 열심히 들어. -형욱

그리고...

△정남이 바보! 잠팅이, 잠 좀 그만자.
 △정각원 계단에 등 좀 달아주세요. 위험해요.
 △박주연 크리스마스 전에 남자친구 꼭 사귀려.

은방글

축하합니다

△추석 전날 생일인 장일호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축하해~
 △인덕아, 너 과제 됐다며? 열심히 해라. 하여튼 축하한다.
 △진영이 차 바꿨다며? 이야, 축하해! 태워 줄 거지?
 △선지누나,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용.
 △새로 신문사 사립이 된 수습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대 페니지 총학생회 생리대 가격인하 서명운동 캠페인 참 수고하시네요. 앞으로도 여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파이팅!!
 △영삼 L.T. 가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성애 아줌마! 4시간에 가까운 강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단
 김용욱
 진보네트워크 미디어 팀장

명절이 서러운 사람들

하청 노동자였다. "마음이 편해야 고향에 가는데 가봤자 뭐하겠습니까? 맘은 여기 있는데 몸만 가봤자... 다른 조합원들도 고향에 갔지만 맘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며 고향에 갔다 왔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해 주었다.
 그는 사내 하청 노동조합 가입당시 입사 2개월 차였다. 추석연휴기간 혼자서 농성장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구청과 경찰에서 농성장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공문이 노조에 전달돼 흑시나 연휴기간에라도 농성장을 철 것 같아서였다. 사측이 많은 사

람들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면 혼자 힘으로는 당해 낼 수 없을 텐데도 그에게서는 어떻게든 천막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을 설에도 역시 아무 연락없이 광주 가야 사내 하청과 홀로 투쟁하고 있던 집배원노동자 협의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가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천막 안에서 회의를 하던 중이었고 집노협 박석의 장은 홀로 의로이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명절 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천막을 지켜야 할 시기로 다가온다. 현장 투쟁을 멈

출 수 없기 때문이고 농성장이 집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들에게 천막은 유일한 무기나 다름없었고 그들의 휴식처였다. 투쟁이 끝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천막은 사람이 그러론 명절에도 계속 지켜지는 그런 곳이었다.

명절 때면 단골로 뉴스를 장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보다 더하다. TV뉴스에 나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예절을 배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인종차별과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그런 나라일 뿐이다. 역시나 그들에게 명절은 쉬는 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듯 투쟁하고 탄압 받는 노동자들에게 명절은 휴식을 취하고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명절은 그들에게 서러움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한산함과 여유로움을 던져 주기는 하지만 칼 날 위를 걸어가듯 숨을 죽여야하는 그런 한산함으로 다가온다.

곧 있으면 추석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기투쟁 중인 농성장 풍경은 그곳에서 차례를 지내고 동료들끼리 모여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이겠다. 이들이 명절에 따르는 술잔이 승리를 예비하는 술잔이 되길 바란다.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국회 탐방기사 인상적

지나오 동대신문에서 국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다.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의원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기보다는 당론에만 이끌려 다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하다. 기사 내용에서 학생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본 것과 느낀 점을 이야기한 내용은 참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국회의 비효율적인 점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전

지나친 풍자 주의해야

동대신문을 애독하는 한 사람으로 매주 신문이 나올 때마다 여러 면을 자세히 읽어보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회전문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회전문대는 짧은 글이지만 학내 구성원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약간은 코믹한 풍자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때때로 회전문대는 너무 지나친 풍자를 통해 특정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

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한 것도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단순히 글을 싣기보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실렸으면 한다.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숙해짐에 따라 그들도 성숙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기사가 실렸으면 한다.

조진원 (경영대1)

방적인 입장만을 다뤄 기사화 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지난 1348호 회전문대 중 오아시스 행세라는 글을 읽으면서 역시 상황을 두고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은행측이 학생들에게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독자인 내가 느끼기에 특정 개인에 대해 너무 비난의 목소리를 던진 것 같아 아쉬웠다.

앞으로 회전문대가 학내의 다양한 모습을 풍자의 글로 독자들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권은영 (경주캠 여학생실 상담원)



서울캠

	월(9/16)	화(9/17)	수(9/18)	목(9/19)	금(9/20)
동국관	참치우거지탕 (1500) 제육김치덮밥 (1500) 콩나물비빔밥 (1500)	설렁탕 (1500) 닭갈비볶음 (1500) 탕수육 (1500)	순두부찌개 (1300) 오징어까스 (1500) 불고기 (1500)	닭조림백반 (1500)	추
상록원	소고기김치찌개 (1500) 후랑크덮밥 (1500) 열무비빔밥 (1500)	양지탕 (1500) 오징어김치불고기 (1500) 햄스터찌개 (1500)	쟁쟁국밥 (1500) 소고기볶음밥 (1500) 케이준치킨샐러드 (1500)	만두육개장 (1500) 순살돈까스 (1500)	석 연
교직원	날치알밥 (3200) 카레라이스 (3000)	버섯전골 (3200) 안동찜닭 (3200)	부대찌개 (3000) 생이채비빔밥 (3000)	콩나물국밥 (3000) 새우볶음밥 (3000)	휴

경주캠

	월(9/16)	화(9/17)	수(9/18)	목(9/19)	금(9/20)
학생회관	콩나물국 (1300) 카레라이스 (1500) 닭갈비볶음밥 (1700) 육개장 (1800)	된장찌개 (1300) 쇠고기덮밥 (1700) 치킨까스 (1800) 전주비빔밥 (1800)	김치국 (1300) 짜장덮밥 (1700) 물냉면 (1800) 불낙덮밥 (2000)	배추국 (1300) 참치이채비빔밥 (1500) 햄이채볶음밥 (1800) 설렁탕 (1800)	추 석 연 휴

문화 VS 문화

우리는 춤으로 틀에 박힌 세상을 바꾼다!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정치적 주제의식을 문화를 통해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취향과 기호에 따른 문화를 즐기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이에 서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학내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동국대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같고 또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학생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 ① 아리랑 VS 피어리스 던
- ② 탈 VS 극예술연구회
- ③ 한민족의 몸짓 VS AJAX

춤, 흥겨운 리듬과 함께 역동하는 몸짓은 보고 있는 사람마저 미술처럼 사로잡는다. 그리고 학내에도 성향은 다르지만 이런 춤의 매력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이에 합합동아리 'AJAX'의 임보미(정외2) 양과 율동패 '한민족의 몸짓'의 최루미(역교2) 양이 만나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 = 평소 서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나요.
 임보미(이하 임) = 한민족의 몸짓은 아니고 다른 율동패의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같은 춤인데도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동작 하나하나에 상징을 담은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몸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최루미(이하 최) = 저는 AJAX의 공연을 본 적은 없지만 흥미는 가지고 있었어요. 대중매체를 통해 합합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AJAX는 합합 춤 안무를 직접 하시나요?
 임 = 직접 창작하기도 하고 기존 합합곡의 것을 차용하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AJAX에 전해 오는 안무를 배우기도 하고요. 합합비에 가서 계속적으로 합합문화를 접하려 노력하고, 합합 페스티벌도 여는 등 정기공연과 외부공연을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최 = 저희는 주로 집회에 가서 공연을 해요. 민중가요의 가사에 맞춰 통일 이야기나 노동자, 농민분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춤을 추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투쟁적 성격만 강한 것은 아니고, 심각했던 분위기를 이완하고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해요.
 기자 = 그렇다면 춤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 = 자유, 그리고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합합은 미국 뒷골목의 흑인들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기성세대의 권위와 고정관념 등에 대한

풍자를 랩과 춤에 담아 느낌으로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 율동패는 전하는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최 =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선동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는데, 몸짓은 간접적인 수단이었어요. 제대로 전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회비판의식을 담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AJAX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
 임 = 예전에 어떤 잡지에서 춤추며 물구나무를 선 사람의 사진과 함께 '춤은 세상을 거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글귀를 보고 감동한 적이 있어요. 한민족의 몸짓이나 저희가 추는 춤도 그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실려 있다고 생각해요.
 최 = 지금 막 드는 생각인데, AJAX와 저희가 연합해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요. 대중제나 백악예술제전 같은 때 O.D.C나 S.S.I.D처럼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 한마당을 여는 거예요. 서로의 춤을 교환해서 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임 = 그래요. 저희도 민중적 내용을 담은 랩을 창작해서 같이 공연하면 좋겠네요. 느낌이나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몸짓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통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합합동아리 'AJAX(좌측 상단)'와 율동패 '한민족의 몸짓'.

클릭! 미술시간 (misulban.jinbo.net)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듯한 화실이나 으리으리한 전시회장이 떠오른다. 그러나 보면 지레 겁을 먹고 괜스레 주눅이 들곤 한다. 하지만 '미술시간 (misulban.jinbo.net)'을 클릭하면, 색색의 크레파스와 한 장의 도화지만으로도 마음 든든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림 동아리 미술시간의 공식홈페이지. '생활과 미술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동네 어느 골목어귀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미술을 즐기게 하겠다는 미술시간. 그래서인지 이 사이트는 몇몇의 운영자에 의한 '보기좋은' 보다는 조금은 거칠지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드는 '또 하나의 작품'이란 인상이 강하게 든다.

먼저 기초적인 연필부터 수채화, 아크릴화, 목탄화, 크로키 등의 다양한 기법을 소개하는 '수업내용'을 통해 회원들은 단계별 수업진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초심자부터 베테랑까지 이 사이트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 흔적으로 보이는 데,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전시'에서 전시되는 회원들의 작품은 1년에 한 두 번 자리를 옮겨 '생활과 미술전'이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선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벽화 그리기'부터 '절개 그리기' '거리초상화 그리기'처럼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생활 속의 미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창작과 생각' Net 미술수업과 같은 콘텐츠가 다른 어느 사이트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회원들이 미술시간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하다.
 비록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회원들의 사랑을 받는 미술시간.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이들이 미술시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문학단신

'둘 하나 섹스' 5년 만에 개봉

이지상 감독의 영화 '둘 하나 섹스'가 제작한지 5년 만에 오는 19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개봉된다. 세기말을 배경으로 하는 '둘 하나 섹스'는 섹스를 통해 죽음에 이르는 젊은이들을 그린 디지털 장편영화로 지난 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회장=김수용)의 초심과 재심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개봉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10월 등급보류 취소결정을 받아내 일반상영이 가능하게 됐다.

문인·가수 함께 하는 '문학카페'

많은 문인, 가수들이 참여하는 '문학카페 명동'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밀리오레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 민족문학작가회(회장=현기영)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인 김지하, 가수 조용필 등 많은 작가,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노래공연, 문학강연 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문학에 대한 생각을 주고 받는 '문학토크쇼' 시간도 마련돼 있다. 문의 313-1486

한 발 먼저 만난 팔팔한 애니의 즐거움

2002 국제 애니 영화제 열려 ... '공각기동대' 속편 등 최초 공개



올 여름,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많은 국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이미 지난 해 개봉한 '월 지난' 애니메이션이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일본 애니메이션은 불법복제판이 아닌 이상 제작된 지 1.2년 정도 지난 것들이다. 하지만 지난 15일까지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 홀에서 열린 '2002 서울 국제 판타스틱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상영된 애니메이션들은 이들과 사뭇 다르다.
 '푸른 꿈 밝은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99년에 처음 개최돼 4회를 맞은 '국제 판타스틱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지금까지 세계 우수 장·단편 애니메이션 총 600편을 초청해 전시·상영해 왔으며 1.2회는 부산, 3회는 정동에서 각각 진행됐다. 특히 이 영화제는 세계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 또는 유명 애니메이션의 후속 작품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마련돼 국내외의 많은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10월에 방영될 예정인 카미야마 켄지 감독의 '공각기동대' 에피소드 1편 '공안9과'와 2편 '폭주의 증명' 두 편과 '파라사이즈 달츠'를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상영 전에 제작·기술팀이 직접 무대에 나와 기획의도, 제작기법 등을 관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올해는 공각기동대를 제작한 '카이로마루' 등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영화제를 기획한 '애니매제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도 기술적인 측면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전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매년 주기적으로 열린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역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기적인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하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또한 매우 낮다.
 때문에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인 이번 행사에 국내 작품은 '마리아야기' 한 편에 그쳤던 게 아닐까. 다음 행사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 일색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내 애니메이션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Tutoring session) 운영

이과대학 수학과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수학 교과목인 일반수학, 수학기초론, 응용수학 등에 대하여 개인교습실(Tutoring session)을 9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 장 소 : 명진관 세미나실(A402)
- ▶ 일 시 : 월 16:00 ~ 17:30
 목 11:30 ~ 13:00
 금 11:30 ~ 13:00

이 과 대 학

法雄臺 定期總會 公告

第46回 法雄臺 定期總會를 맞이하여 尊敬하는 先輩님들과 後輩님들을 모시고 민남의 자리를 갖고자 하오니 많은 參席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02년 9월 28일(토) 오후 5시
- ▶ 장 소 : 상륙관 3층 교수식당

東國大學校 法雄臺

불기2546년! 진학 이념 구현을 위한 알기 쉬운 불교 따라 잡기 행사 개최

어느덧 조석으로 바람이 쌀쌀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실례임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계절이요. 또한 사색과 명상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 온 한 해를 더욱 보람 있게 정리하고 여유와 나눔의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픈 학생들을 위하여, 9월과 10월에 걸쳐 약 4주 동안 아래와 같이 '이해와 접근이 쉬운 불교 관련 대중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의 불교 체험 및 정서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행 사 명	행사일시 및 대상	장 소	접수기간	접수 및 문의처	비 고
북타배우기 강좌	1차 : 9.26(목) 18:30~ 2차 : 10.10(목) 18:30~ 3차 : 10.17(목) 18:30~ O 대상 : 본교 재학생	정각원 법당	9. 9(월)~ 10. 25(수)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 (2260-8759/017-304-3771) ※ 홈페이지 접수 가능 (http://www.dongbul.net)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북타 배우기 자료집' 무료 배포
제18회 추계 명찰순례	10. 11(금)~10. 12(토) (1박2일) O 대상 : 모든 동국인 (신청순 45명)	충북 단양군 '천장선원'	9. 30(월)~ 10. 10(목)	본관 3층 학생복지실 (2260-3048)	참가비 5,000원
명사초청특강	10월말 또는 11월초 (미정)	본관 중강당	-	-	현각 스님 강연 예정 (萬行·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著者)
산사체험 '마을보기·느끼기·나누기' 동계 수련대회	12. 11(수)~12. 14(토) (3박4일) O 대상 : 본교 재학생 (신청순 45명)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	9. 9(월)~ 동계방학일 전까지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 (2260-8759/017-304-3771) ※ 홈페이지 접수 가능 (http://www.dongbul.net)	참가비 25,000원 (02학년 신입생은 10,000원)

주 최 : 학생처 · 불교학생회
 후 원 : 정각원 · 석림회

실전 모의면접 대상자 모집

2003년 2월 취업예정자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탐구II] 수업 6주[실전모의면접]를 10월 4일(금) 개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의면접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02. 9. 16(월) ~ 9. 25(수)
 2. 모집지역
 - 직업탐구 수강자 중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미 수강자도 가능)
 - 취업예정자
 3. 모집인원 : 16명 (남, 여)
 - 개별면접 : 2명 - 집단면접 : 12명 (2개조 6명씩)
 - 프리젠테이션 : 2명 (사전에 주제 알려드림)
 4. 접 수 처 : 본관 학생처 취업지원팀 ☎ 2260-3054
- ※ 면접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학 생 처

헌혈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하세요.

- ▶ 기 간 : 9월 23일(월) ~ 24일(화)
 - ▶ 장 소 : 도서관 및 동국관 앞
- ※ 헌혈증 기부 학우에 한하여 추첨 후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동국대학교 R C Y

매체비평

음반 편

후(逅)

“그림다, 그녀들의 목소리 노래하라 그리고 향유하라”



여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노래하는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첫 번째 앨범 '후(逅)'.

생물학적 '남성'임에도, 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청자들과 만나며 일으키는

일종의 화학변화를 보는 것이 즐겁다. 그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게 분명한 어떤 계급·정체성의 창작자와 감상자 사이의 교감을 간접적으로나마 '집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의 데뷔앨범으로 이런 생각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노래운동진영의 객주림이나 여성주의문화운동진영의 안혜경, 인디씬에서의 밴드 마고의 '페미니즘'을 헤드카피로 내걸고 활동했거나 현재도 활동하고 있지만, 지현은 자기 신념의 표상이자 홍보전략으로서 '페미니스트'라는 기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듯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현의 데뷔앨범 '후(逅)'는 페미니스트라는 수식을 '대중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음반

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수록된 모든 노래들이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특수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실이나 그 곡들이 현악과 피아노, 샘플링과 시퀀싱의 조합으로 가벼운 듯 어두운 분위기를 내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시종일관 나른하지만 힘있게 진행되는 지현의 보컬에서 초기 한영애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덧붙여 프로이드와 다윈이 정리한 정신분석학적, 생물학적 이론들이 이후 남성 권력자들에게 의해 여성이 남성보다 얼마나 열등한가에 대한 상식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라.

그렇다면 오르가즘의 주제로 여성을 표현한 'Masturbation'은 한국대중음악에서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직설적으로 드러

낸 대표곡으로 꼽기에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 전철에서의 경험을 어쿠스틱 기타의 리드아레 풀어놓는 포크록적 감수성('아저씨 싫어')과 너무나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게 바치는 블루지한 송가 '좀 많이'의 핑키(funky)한 전기 기타연주(블루코스터 이상순)도 좋은데, 무엇보다 '난 네가 싫어, 좀 많이'에서 드러나는 언어유희의 재치는 지현이 가진 음악적 재능에 대해 발전적인 기대도 품게 한다.

물론 바다 건너, 혹은 한국의 최신곡을 즐겨듣는 청자라면 이 음반을 듣고는 촌스럽다고 일갈할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사용되는 악기나 편곡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얘기가. 하지만, 지현을 포함하여 여성이나 여

성주의 음악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굳이 음악적인 부분만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무시하지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여성이 창작한 작품들이 다른 여성들을 통해 어떻게 향유되고 재생산되어 서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바로 거기에서 여성음악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가능할 게 아닐까란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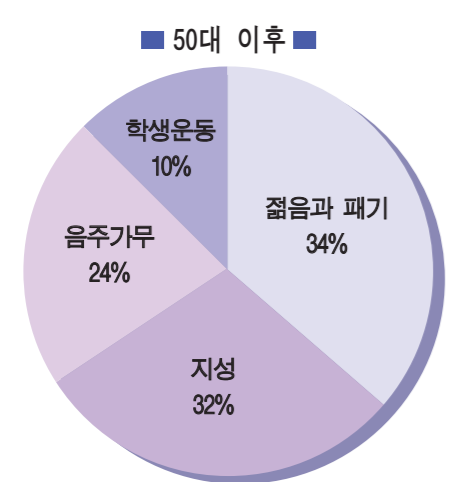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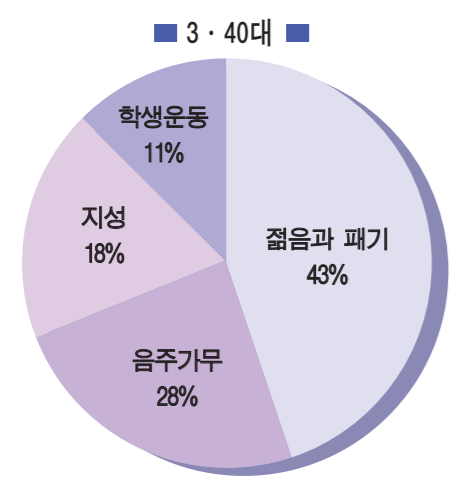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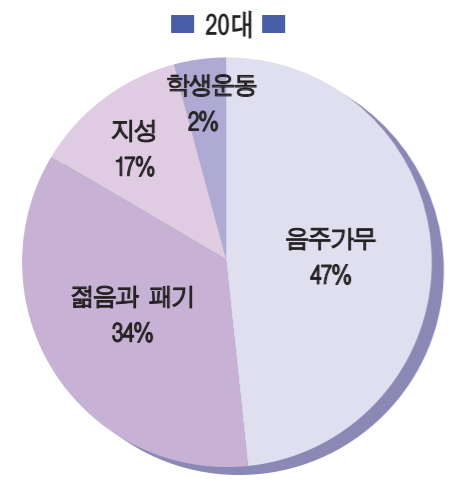
그런 면에서 한국에는 대중음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 창작자로서든 비평가로서든 감상자로서든 그녀들의 목소리가 그리운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차우진
대중음악웹진 weiv 편집위원

사회변화의 또다른 이름, 대학생

지난 7,80년대 대학생들은 소수 엘리트층이나 사회 변혁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대학과 학생의 수가 급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그에 따른 인식들은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사는 지난 12일부터 3일에 걸쳐 서울 명동 일대와 충무로역, 장충단공원 등 본교 주변을 중심으로 대학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20대, 3·40대, 50대 후반으로 각각 100명이었다.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학내일 기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한 친구가 물었다. "요즘 애들은 어때냐?" 그에 대한 내 대답은 "아~무 생각 없어"였다.

나름대로 대학생활을 열심히, 오래한 나로서는 대학의 흐름을 꽤 알고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기자가 돼서 만나기 시작한 대학생들은 실망스러웠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 익숙한 것까지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말해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정답만 있었다. 인터뷰 차 만났던, 한때는 대학에 '살았던' 윤도현 씨나 정태춘 씨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단순화한다면 '이제 기대를 버렸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도 비슷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최소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지난 대학생활과 비교할 때 지금의 대학은 절망이란 단어, 그 자체였다.

그런데 당신은 왜 대학생을 상대로 먹고사는 일을 하고 있냐고? 양심도 없느냐고? 맞다.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절망이

계속 지속됐더라면 나는 일찌감치 이 일을 떠러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연 안개가 걷히고 저 멀리 산봉우리가 희미하게 눈을 뜨듯 절망 너머에 있는 대학의 현실과 희망 또한 찾아내게 된 것이다.

사실 요즘 대학생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생은 이제 이렇다 할 특권이 없다. 대학생 배지만 달고 있어도 올 패스(All Pass)되던 '선진국주의 엘리트'도, 부모님이 눈 팔고 소관 돈으로 상경계 학업에 정진했던 '가족 대표선수'의 영예도 옛말이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리송한데다가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할지도 불투명한 시대이니 '민주주의의 전사'가 되고 싶어도 막연하기만 하다. 9년간의 입시공부에 일년에 수백 만 원을 들여 졸업장을 따도, 먹고 살 길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안한 신분이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용도변경된 대학의 현실에 따라 그때그때 요구되는 자질과 캐리어를 뒤기 위해 대학생들은 학원으로, 물 건너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움직여야 한다. 대학생은 양적으로 늘고 질적으로는 하향평준화 되면서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 집단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종적인 존재가 됐다. "차라리 70년대나 80년대에 대학을 다

녔더라면 편했을 것 같아요"라는 어느 후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도 이런 실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대학생들은 결코 경박해지거나 전보다 못해진 게 아니라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다.

그리고 옛 세대가 갖지 못했던 건강함 또한 많았다. 21세기의 들머리에 서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에서 자유롭다. 그런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문화 자체를 견딜 수 없는, 그것에 적응할 수 없는 세대들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부드럽고 기쁘게 할 것이며, 선배들이 화염병을 던지며 얻어냈던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학생들을 보면서 어느덧 난 미소를 짓게 됐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게 됐고 희망을 걸게 됐다.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사실 나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다. 누가 다시 맨 처음 질문을 던진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요즘 애들은 고맙데, 하지만 잘 할거야"라고.

장우성
대학 n@e 기자



신념으로 세상뒤집기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문화행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본교 총학생회에서 문화국장직을 맡고 있는 강인욱(영문4) 양이다.

스물세살에 늦깎이 신입생으로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생활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이 없는 삭막함 그 자체였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찾은 것이 학생회 일이다. 이후 강 양은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점들을 조금씩 알게 됐고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대학생의 특징이라면 젊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젊고 순수하기에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과감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거리 선전전 등 학내 주요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는 그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공연을 할 때 가끔 씩씩한 눈빛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 더 안타깝다고 한다.

또한 80년대와 지금의 문화가 달라진 만큼 학생운동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고집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학생운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는 강 양. 졸업 후에도 문화관련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지금의 생각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한다.

인터뷰 중에도 동약의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문화제를 구상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대학생으로서의 젊은 열정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4)

kauri21@dongguk.edu



"일, 난 놀면서 해!"

공책에는 글씨를 똑바로 쓸 수 있도록 밑줄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밑줄은 비단 공책 뿐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 속에도 그려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 밑줄에서 벗어나면 '틀린' 것으로 취급 받곤 한다. 그런데 이 밑줄을 과감히 지워버린 '베짱베짱' 한 사람들이 있다. 흥대 앞 한 카페에서 만난 목정욱(중양대 사 진4)·이진옥(23) 군과 김희선(한양대 영문4) 양이 바로 그들이다.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책에 눈을 들었다. 평소에도 미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은 'Cutting Your Headache'라는 슬로건을 표현하기 위해 물고기의 머리와 몸을 나눈 독특한 디자인으로 공책을 제작했다. 이들이 작업을 하는 장소는 흥대 부근에 마련한 '3.7 센트레'라는 이름의 사무실로, 공책제작 외에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 "친구들과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중이에요"라고 말하며 목 군은 놀이를 통해 일에 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있었다.

"이 그림을 사람들이 못 그렸다고 말할 거라 생각하면 안돼요. 사람의 눈과 생각은 모두 다르니까요." 또한 이 군은 휴지에 직접 꽃을 그리며 자신의 능력만을 닦으며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닫힌 사고를 꼬집었다.

요즘 도서관에 가면 토익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바른 대학생'이들과 이 세대의 모습은 분명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꾸준히 자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대학문화의 청정수역

'유지예이드' '체리웨이크'. 다른 평범한 커피숍에서는 맛볼 수 없는 메뉴들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서울 신촌의 '작은 풀씨의 꿈'에서는 단연 손꼽히는 인기메뉴이다.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국적불명의 명절을 반대하는 '한국대학생 대중문화감시단'이 만든 문화카페 '작은 풀씨의 꿈'. 지난 1998년 말, 건전한 대학문화의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마뽀바당을 공사하고 간판과 조명을 설치해 가운 30평 남짓의 공간이다. 현재는 중앙대·연세대 등 총 15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서빙을 하고, 메뉴판을 제작하거나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등 카페 전반에 관한 일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모두 자원봉사라는 것. 그리고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통해 결식아동과 북한어린이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은 일체 할 수 없는 이곳은 그야말로 청정수역인 셈. 게다가 한 달에 한번씩 교체되는 '작가초대전'이나 매달 마지막 금요일마다 이어지는 대학연합합창단의 공연은 이 카페가 문화를 주제로 이 끌어 가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다.

"새를 사서 고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돈주 고도 못하는 경험이기도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바뀔 거라는 믿음,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에요"라고 말하는 김미라(이화여대 특고4) 양.

'진짜' 대학문화에 목말랐던 사람이 있다면 이곳을 아지트로 만들어 보라. 시각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작은 풀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그 '너머'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거요." 사랑에 비밀, UFO와 외계인, 심령, 초능력 등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혹은 사건의 전모를 쫓는 FBI 요원 밀터와 스킨리는 사력을 다해 수사하지만 이번이 사건의 가장자리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겠다. 사건해결이 눈앞에 다가갈 때마다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 증거는 은폐되고, 기억은 조작된다. 'X-파일'. 그렇게 남겨진 미해결사건과

일목록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규명위)의 활동시한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해 오늘(16일)로 종료된다. 무고한 죽음의 진상을 추적해 온 의문사규명위가 그 동안 접수한 사건은 총83건. 그 중 종결된 사건은 44건으로, 최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등이 조작된

것이라는 수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종결된 사건 중 31건이 기각되거나 규명불능판정을 받은 경우며 아직도 39건이 미결 상태이다. ▲의문사규명위는 지난 7일과 10일 활동시한연장과 조사권강화 내용을 담은 2건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늦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따라서 13일 열린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로

다음달 5일까지 휴회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책임을 회피했고, 청와대는 시종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의문사규명위는 현행 특별법에 따라 조 사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밀터와 스킨리는 매번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 앞에서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고 중얼거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목숨들

은 다시금 'X-파일'에 갇혀 세상 빛을 볼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치권의 무관심도 의문사규명위가 힘을 잃게 된 지금, 남겨진 죽음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다. 진실이 있다는 곳, 그 '너머'에 가고 싶다. 이수경 문화부장
papaya@dongguk.edu